

2017 새 설계

박 홍 룰 목포시장

“1000만 관광도시 기반 구축...미래성장 동력 만들겠다”



박홍룰 목포시장은 1일 “2017년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고하도 개발 등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 갈 관광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관광 분야에 관심을 쏟아온 박 시장은 특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해상케이블카는 반드시 연내 완공시켜 2018년 초부터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상케이블카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계한 뉴 관광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시장은 육지면 발상지인 고하도에 목화 체험단지와 해안 힐링 랜드를 조성하고, 밤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독특한 야간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고하도·목포대교·대반동 해안도로에 경관 조명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박 시장은 목포관광객 1000만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한 해법도 내놔다.

관광객 통계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 목포

밤바다 조망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재정 건전화·숙박시설 확충 주력

해상케이블카 연내 완공할 것

관광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목포 관광 발전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박 시장은 이 용역을 통해 주요 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광 마케팅 및 수용태세 방안은 물론 도시 재생·문화예술·교통·숙박·음식·쇼핑·특산물 등을 총망라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조트·콘도 등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사업자 유치를 위해 주력해 왔다”는 박 시장은 “고하도에 500~10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을 위해 현재 E사와 K사 등 2개사와 접촉 중이며, E사와는 투자·관광분야 대표가 4차례 목포시를 방문해 리조트 건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모든 직원이 세일즈 행정에 나서 대양산단은 23개 기업 76필지 27만1582㎡에 748억원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세라믹산단은 5개 기업 5필지 2만1859㎡에 59억원의 분양실적을 이뤘다”면서 “올해는 20여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분원 유치, 국립 김 산업 연구소 및 수산기자재 진흥원 건립, 고차가공 수산식품 클러스터 및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서남권 수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놔다.

박 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발로 뛴 결과, 신규 사업으로 예비선 부두 건설 21억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등 4곳 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3억5000만원 등 69억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립 60억원,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 조성 35억원, 서산 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30억원 등 총 38건에 2581억원이 반영되는 실적을 올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2017년 주요 역점 사업은

- ▲해상케이블카 설치
-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
-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 ▲고하도 힐링 랜드 조성
-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

또 취임 당시 3010억 원이었던 부채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09억원을 갚아 현재 2401억 원으로 재정 건전화를 이뤄내는 성과도 거뒀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올해에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 행정’ 정착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 시민소통위원회 시정 참여 확대, 톱! 톱! 톱! 소리함 설치 운영, 각 국별 현장방문 소통의 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광양시, 시내버스 운임·요금 10.66% 인상

내일부터 일반인 150원, 초·중고생 50원 올려

광양시는 “3일부터 2013년 이후 3년 만에 시내버스 운임·요금을 10.66%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자로 심의·의결한 도내 시내버스 운임·요금을 전남도에서 도내 시군으로 시달해 시행되는 것이다. 광양시는 이번 버스요금 조정으로 시내 기본요금이 일반인은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중고생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초등생은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됐다. 시외버스 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금

1km당 116.14원을 적용해 광양읍과 순천 간 일반인 요금을 1600원에서 1700으로, 중마동과 순천 간 일반인 요금을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광양과 하동간 일반인 요금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됐으며, 중고생은 일반인 요금에서 20%을, 초등생은 50%를 각각 할인해 적용한다.

정해중 광양시 교통행정팀장은 “조정된 요금을 잘 확인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장성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장성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잠재적 수급자 발굴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을 펼친 결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장성군은 그동안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등을 활용해 각종 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읍면 복지 이동장제도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이 행정기관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나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대상자 높이에 맞춘 맞춤형·현장형 복지행정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스트레스 날리고 감성 채우는 강진 ‘푸소체험’ 오세요”

12개 학교 예약 2600명 넘어

지난해 4억3천만원 소득 올려

운영농가 대상 안전교육 실시

강진군이 역점사업으로 운영중인 푸소체험이 2017년 예약 인원 2600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2개 학교가 푸소체험을 사전 예약하는 등 26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학여행철인 4월과 10월 예약이 많은 만큼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푸소체험은 농촌 집에서 1박2일, 2박3일간 농가주와 함께 생활하며 농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휴식이 필요한 도시민에게 농촌의 감성을 마케팅한다는 강진군의 전략이 적중하며, 지난해에만 7000명이 넘게 다녀가 4억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강진군은 높아진 푸소체험의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농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청소년심리교육, 커뮤니티선기법, 성희롱예방교육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농촌체험 아이디어를 공유·확대해



강진군이 지난해 운영한 푸소체험에서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체험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갈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했던 푸소체험이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타인과의 소통, 따뜻한 정

서의 교류라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푸소(FU-SO)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험예약은 강진군 문화관광과(061-430-3313~4)로 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